

작아지지 말자



교장 민 병 준

1997년, 달러 환율의 급등과 대기업의 연쇄 부도, 그리고 IMF 차관 도입이라는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벌써 인항이 개교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졸업생들이 인항을 거쳐 사회로 나갔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몫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천여 근로자들의 땀의 결실로 맺어진 인항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학교교로서의 어려움을 넘어서고자 여러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정직과 효행과 봉사의 정신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하며

함께 노력하여 이제는 인천 사학의 명문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교 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인항인 여러분이 움추러 드는 마음을 활짝 펴고 젊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 인항은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광규 시인의 시 중에 '작은 사내들'이란 시가 있습니다.

'작아진다. 자꾸만 작아진다... 얼굴 가리고 신문을 보면 세상이 너무 평온하여 작아진다. 넥타이를 매고 보기 좋게 일렬로 서서 작아지고, 모두가 장사를 해 돈 벌 생각을 하며 작아지고, 들리지 않는 명령에 귀기울이며 작아지고, 제복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작아지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작아지고, 수많은 모임을 갖고 박수를 치며 작아지고, 권력의 점심을 얻어먹고 이를 쭈시며 작아지고, 배가 나와 열심히 골프를 치며 작아지고, 각 테일 파티에 나가 양주를 마시며 작아지고, 이제는 너무 커진 아내를 안으며 작아진다... 작아졌다. 그들은 충분히 작아졌다. 성명 직업과 연명만 남고, 그들은 이제 너무 작아져 보이지 않는다' 일상 속에 묻혀 점점 왜소해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작아진다'는

말로 꼬집고 있는 이 시를 읽으면 어딘가 꼭 우리들 삶의 한 단면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습에 얽매어, 제도에 길들여져서, 돈의 노예가 되어, 습관처럼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경멸하던 인간의 모습을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권력 앞에 너무 약한 존재여서, 학연 지연같은 여러 끈들로 자신을 붙들어 매놓지 않으면 어딘가 불안하고 소외되는 듯하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며 살 때도 많습니다. 새로움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던지는 일보다는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어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보수 안정만을 회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나 게으름이 몸에 배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은 늪처럼 썩어가고 정체해버리는 줄 알면서도 몸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활어(活魚)는 역수(逆水)하고, 사어(死魚)는 유수(流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고기는 맑은 물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고, 죽은 고기는 흙탕물이나 더러운 물을 분별하지 않고 함께 떠내려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 삶은 어떨까요? 살아있음을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며 아직도 신선한 물을 찾

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새로운 삶의 희망 같은 것은 거의 잊은 채 습관처럼 일상에 몸을 맡기고 아래로 아래로 떠내려갈 뿐인 피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빗줄기 같은 것에 젖으면서도 그것들을 위를 향해 끝없이 끌어올려 꽃을 피우는 봄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의욕과 기력을 접어둔 채 시드는 가을 풀처럼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겨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만 변합니다. 봄나무들이 저마다 피우는 꽃의 양과 크기는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살아 움직인 만큼의 크기입니다. '작아지지 말자. 꽃처럼 물고기 처럼 살아 움직이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개교 10년을 지나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는 인항인 여러분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인항 10년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신 4천여 노조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쳐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크게 자라는 인항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